부자 됨의 급소를 찔러 마비시키는 복음

(딤전6:17~21)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0.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자 됨의 급소를 찔러 마비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부자 됨의 급소를 찔러 마비시키는 복음'
부자의 급소가 아니라 부자 됨의 급소입니다.
에베소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목회에 관한 서신 마지막에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하십니다.
이 마지막 6장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반복되는 거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선민과 돈의 관계, 교인과 돈의 관계가 역사가 있는 관계입니다.
우연히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돈에 관한 얘기가 반복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망해서 복지에서 쫓겨 가게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뭐하는 신이라고 여겨졌던 우상입니까?
풍요와 다신을 주관하는 남신과 여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선민이 돈 때문에 망한 겁니다, 돈을 좋아하다가.

그러면 예수님 때에는,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상징적으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이 되는 장소인 성전을 장사하는 굴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비즈니스맨들이 된 거예요.
장소를 빌려주고 대여업을 한 겁니다, 장사꾼들에게.
그리고 종교적으로 최고 엘리트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상의 경향을 지배하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싸웠다 그러지만, 바리새인들만큼 영향력이 크지 못했다고 봐요.
물론 사두개인 중에 산헤드린공회 의원이 있었고 그렇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사두개인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포함돼 있고, 대제사장들도 돈을 좋아하고, 바리새인도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이유가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합니다, 항상 권력은 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티칸 지하 금고에 온 세상의 보물이 다 소장되어 있다는, 그러한 루머성의 사실 말고라도, 루터의 종교개혁이 중세의 교회를 향한 거 아닙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돈과 연관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황 레오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수축을 위해서 돈이 모자라는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면죄부 판매가 이 비텐베르크의 젊은 무명의 신학자의 신앙적 양심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교황과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돈을 모으려고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몇 백 억 몇 천 억짜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나가면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면죄부 판매와 거의 버금가는 헌금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시대적 차이를 다 벗겨내 버리고, 마음 그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상태를 다 아주 싹 벗겨서 알몸으로 드러내 보이면, 교황 레오10세나 지금의 교회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을 하게 하려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 당회원들이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되고 못되고는 교인 숫자에 달려 있잖아요, 현대의 기준으로.
근데 그 궁극적인 교회에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그 강렬한 바람이, 재정의 풍족함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짓고 뭐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재정적인 풍족함으로 귀결된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그러면, 돈에 먹혀버린 교회에 대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돈에 잠식되어 버린 목사님들의 영성, 교회 지도자들의 영성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의 라이벌로서 재물을 이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만 들어오라는 법이 없으니까.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자들에게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자가 들어와도 목회자인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높이게 하지 말고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것이며,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이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끌라 그래서 부자들에게, 당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세요! 한다고, 그들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부자들에게도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으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부자들 중에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마음을 높이지 않고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이며 그리고 선한 일에 부자가 될 것이다, 선한 일에 부자가 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은 부자 됨의 급소를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급소가 뭡니까 여러분.
태권도에서 한 50여 군데의 급소를 말하고 있는데, 바늘로 하나 찔러도 사람이 죽는 급소가 있어요.
죽거나 약한 충격에도 실신하거나, 아니면 벙어리가 되는 그런 급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비되거나 생명을 없앨 수 있는 게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부자 됨의 급소를 찌른다는 것은, 부자 될 때에 부자 됨의 재미가 있잖아요? 부자 됨의 기쁨이 있잖아요? 부자 됨의 자랑이 있잖아요?
그곳을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완전히 급소를 찔러서 다 없어지게 하거나,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감기 걸리고 나면 심할 경우는 한 달 두 달 동안, 이 냄새를 모르면서 맛을 못 느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뭘 먹어도 음식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마비가 되지요.
그런 것처럼, 부자가 돼서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많은 돈 맛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로서 참 교인이냐 아니냐, 참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오늘 본문대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급소를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찔렸느냐 안 찔렸느냐를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급소가 도대체 뭐냐 라는 얘기를 오늘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부자가 된 사람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거 참 부자 됨의 기가 막힌 재미입니다, 부자 됨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쁨인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다는 게.
마음이 높아지는 게 왜 큰 기쁨입니까?
이게 다른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도덕적인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너도나도 앞집도 뒷집도 다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돈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적은 사람은, 돈 위에 올라서면 위치가 낮을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이 벌린 사람은 그 돈 위에 서게 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진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만족감이 주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난데 왜 만족감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기쁨이지요.
근데 이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야 돼요, 내가 우월하다는 걸, 내가 돈이 많아 가지고, 지금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옆집 박 씨 아저씨네 쏘나타 살 때, 나는 BMW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하는 가정부 아줌마, 길에서 파는 가판대에서 파는 5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녀요, 그러면 나랑 가정부 아줌마랑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300만 원짜리 명품 빽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아줌마가 보는 앞에서.
그러면 아줌마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 루이비통이네 그 말로만 듣던 루이비통 한 번 만져 봐도 돼요 사모님? 아이~ 만져봐 아줌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런 게 무슨 가방에만 있어요? 삶의 8방 16방 32방으로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차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건데, 강남의 어느 백화점에 일 년 동안에 쇼핑하는 액수가 1억이 넘으면 그러면 VVIP 가 되고, 그 VVIP 사모님들은 차를 몰고 왔을 때, 그냥 진입로 그리고 바로 내리자마자 백화점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다 그냥 세워두면 됩니다.
1억이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지하주차장에 내려 가지고 뭐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예쁜 아가씨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서, 시커먼데서 주차를 해야 되지마는, 1억 이상인 사람은 대낮에 햇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그냥 출입구에다 차를 대고, 싹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VVIP 증서가 딱 차에 있으면.
아~! 뭐 비행기, first class, economy class 쭉~ 줄 서 있는데, first class 손님은 '어서 탑승하십시오!' 딱~ 들어갈 때.
Economy 석 거기 밖에는 줄 안 서 봤는데 참 창피해요. 어떨 때는.
나는 뭐하느라 저렇게 저기에 불려 들어가지 못할까.

이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는, 부자 됨의 기쁨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받아들이잖아요?
많~이 번 돈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디모데가 '부자인 당신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높은 돈 무더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십자가에 연합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리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요, 십자가 자리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자들에게는 급소입니다, 급소.
부자 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급소를 찔러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나타나는 우월감으로 기뻐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잠언서 23장 같은 데 보면, 돈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릴 거니까 거기에 기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다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려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부자 됨의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돈이 몇 십억 통장에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습니까? 핑크빛이에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몇 십억 들어 있는데 통장에.
그 몇 십억 들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나마 차선책이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절반씩 직장에서 내줄 때, 옳다구나 때는 이때구나 하고 국민연금을 듭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퇴직연금을 듭니다.
국민연금 낸 것으로 한 70~80만원 받고, 퇴직연금 받아가지고 또한 뭐 100만원 받고, 근데 170~180만원 갖고는 이게 좀 부족할 거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연금을 또 듭니다.
그렇게 세 개정도 연금을 들어 놓으니까 이제, 아! 든든한 거예요 조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죽은 대로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고 사는 거고,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아 놓고 그거 때문에 미래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불신앙인 거예요.
왜 돈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돈을 주신 건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게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언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선한 사업에서 부자가 돼라.
돈을 내게 많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내 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하나님의 지출용도가 붙어 있는 돈들이에요.
그거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게 돈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한테 주심으로써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다~ 지금 유산되어 버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내 돈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는 용도가 다 붙어있는 돈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함부로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서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보장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돈 저축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미래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알려지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뭐!
그래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보장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장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실감이 나는 게, 그래서 든든~해 지는 거.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나와 연결이 되면, 내가 든든~하다고 느끼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돈 몇 십억 넣어 놓고 든든하다고 느끼면, 그런 장로님 계시면 그거 가짜 장로님이지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돈 믿는 거고,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우상을 섬기는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에 급소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 급소는 뭐였어요?
많~은 돈이 보장이 되어 준다.

이게 부자 됨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 복음 받아서 급소를 찔리면서, 돈이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풍족함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 돼있지 않습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풍족함 속에 산다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히느냐?
지금 풍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바울이,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임이라 라고 하는 재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풍족한 것이 풍족하겠습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사도바울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후하게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까? 거지에요, 거지 사도바울이.
그런데 이 거지같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 말이 '후히 주신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잖아요.
부자인데 내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생활화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삼일 지나고 십자가 생활화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 버는 것처럼 하나님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벌어지다가,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십자가 생활화하는 정도와 밀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순간들이 자주 느껴지기 시작해요.
한 번 충만해지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운이 되지만 충만해지는 단계로 올라오는 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다운되는 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깊~이 다운됐다가 올라오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점점 짧아지고 빨리 회복되고, 짧아지고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마치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이 밖으로 흘러납니다, 넘쳐나잖아요.
근데 물이 텅텅 비어 있는 양동이는, 한 바가지 부어도 차지를 않습니다, 이런 원리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버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같은 옷인데도, 그 거지 같은 옷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 덩어리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 버리면.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면, 3년 된 마티즈, 가장 우리나라에서 작은 중고차를 사고도, 그냥 그게 눈부신 은혜의 덩어리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차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에 이 건희 회장님, 며칠 전에 일본에 70일인 가 80일 머물면서 기업운영에 대한 계획을 하고 돌아왔다고 그러시더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운영에 대한 계획이 뭐에요?
지금 있는 돈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80일 동안 고심하다 왔다는 겁니다.
그거 뭐 그분뿐이겠어요? SK 그럴 거고, LG 그럴 거고, 저기 외국에 가면 애플 그럴 거고, 빌 게이츠 그럴 겁니다.
이상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많이 벌지 못해 안달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또, 부자 됨의 큰~ 재미 중 하나에요.
첫 번째 재미가 뭡니까 여러분? 부자 됨의 재미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차별화를 통해서 우월한 만족감을 느껴요.
두 번째 부자 됨의 재미가 뭡니까?
미래의 소망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는.
세 번째가 뭡니까?
돈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어.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요, 재테크에요 재테크.
생계유지가 근근히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재테크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부자들에게 재테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
돈이 돈을 버는 재미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막아버리느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면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은 마음만 생겨요.
근데 어디다 쓰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출명목을 따라 다 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한 사업입니다.
먹이고 입히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나를 통해 먹이고 입히시려고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심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여유가 되는 돈을 줘버리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도 이루어지고, 나와 그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사랑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다 줘버리면 우리 인간들끼리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자꾸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거지꼴과 흡사한 사도바울은, 후히 주사 풍족하게 누리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습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맞춤 사이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무한한 우주라고 말하지만 그 무한한 우주보다 더 큰 분이세요.
무한한 우주보다 더 큰 분에게 맞춰진 사이즈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도록 맞춰진 사이즈가.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이 세상을 집어넣는다? 우주를 집어넣어도 안 찹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우주를 집어넣어도 안 찰 거예요, 달나라를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도 안 차요.
그러니 삼성의 이 건희 회장이 찰 리가 없어요, 빌 게이츠가 마음이 찰 리가 없다구요.
나는 찰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셔 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사소한 몽당연필을 봐도 은혜의 빛이 나는 은혜의 덩어리인데, 그분들 하나님으로 차지 않은 재벌 회장님들한테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고 롤스로이팬텀 10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달구지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으로 차면 만족해지는 겁니다.
달구지가 은혜의 빛인데 은혜의 덩어리인데 뭐, 다~ 찬 사람에게는.
찰랑찰랑 넘치는 사람에게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다 은혜에요, 다 은혜.

이렇게 부자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바뀌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경계하는 부자가 누구입니까?
부자 됨의 재미에 빠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일 뿐이지, 부자는 되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과 부자 됨은 서로 상극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 받아들여 부자 됨의 급소가 찔리게 하시고, 하나님 부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